



스물세번째 이야기

사랑부를 소개합니다.

2016년 8월 13~15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2박3일 동안 사랑부 여름캠프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부 여름캠프는 다른 부서의 아웃리치와 동등한 일 년 사역 중 가장 크고도 은혜가 넘치는 행사입니다. 장애학생 47명과 교사 48명 그리고 5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캠프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는 수고로웠지만 하나님과 장애인 친구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장애 친구들에게는 일 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즐거운 모험과 여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들도 기도로 동참 하시면서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몇 가지만 빼고는 그 준비와 진행이 순적하고 편안하게 잘 이루어진 편입니다. 몇 가지 중에는 캠프장소 선정인데 여러 차례 거듭된 답사에도 불구하고 섭외장소가 취소되어 우여곡절을 겪는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수원 사용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초과되어 포기하려는 순간, 할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으로 장소가 어렵게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과 교사, 봉사자들 모두 좋은 시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러 행사를(야외 아쿠아수영장, 미니올림픽, 도자기체험, 코너학습) 즐겁고도 유익하게 즐겼습니다. 또한 저녁시간과 주일에는 찬양과 말씀, 공과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캠프인데도 준비할 때는 항상 두려움과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사들과 봉사자들 예산 모두가 모자란데 어떻게 채워질까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프가 진행되면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어 안도함으로 돌아오는 귀가 길에는 늘 감사가 넘쳤던 것이 벌써 20차례나 됩니다. 올해도 사랑부 캠프체험은 동일한 기도와 은혜 그리고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저희 온누리교회는 서빙고에서만 연령대별로 세 부서에서, 그리고 캠퍼스별로는 네 곳에서 사랑부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빙고에서는 장애유소년들(~13세)은 ‘꿈사랑부’(2013년 설립)에, 장애청소년들(14~19세)은 ‘사랑부’(1988년 창립,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에, 장애청장년들(20세~)은 ‘예수사랑부’(2004년 설립)에 소속됩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주로 휠체어를 타시는 성인 지체장애인 분들은 누리사랑부(1993년 창립)에 소속됩니다. 각 캠퍼스별로는 연령구분 없이 예배드리는 양재사랑부(2007년~), 강동사랑부(2012년~), 부천사랑부(2013년~), 인천사랑부(2015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부를 알고 섬기게 된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마침 교회 안에서 사역지를 찾고 있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사랑부 여름캠프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사로 12년, 전도사로 3년, 목사로 1년 이렇게 사랑부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2001년도는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던 시기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가는 소망이 피어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갈 데 없었던 저에게 온누리 서빙고 캠퍼스만큼은 열려 있었고 심신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처음 담당했던 학생은 김OO이라는 9살 된 여학생이었는데 시각장애와 자폐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캠프 출발하는 날 처음 만났는데 약간의 사전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 평생 장애인을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업자로 집에서 갇힌 아들을 돌봤던 육아경험을 밀친 삼아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특수교육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장면이 살아납니다. 버스를 타고 OO이를 창가에 앉히고 강원도 캠프지로 달려가는 중에 창밖엔 강물이 흐르고 푸른 산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 거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OO이의 등에 손을 얹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면 전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때의 저는 이제 겨우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초신자라 마음이 삭막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척이나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 왠지 모를 울컥함에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애절한 기도는 단순한 외침의 반복이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끝 모를 기도였지만, 저의 마음은 녹아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야말로 새롭게 느껴지는 평안을 스치듯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부를 처음 섬기는 거라 당연히 2박3일 간의 여정 속에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돌아올 때는 이미 제 마음 속에 사랑부 교사로서의 다짐과 소망이 차올랐습니다. 이후 사랑부교사로 섬기면서 저의 삶의 바닥은 은혜로 적셔졌고 회복의 시간이 다져졌습니다. 지금도 그리워지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랑부예배가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부를 섬겨오면서 느꼈던 사랑부 사역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역과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부 사역은 ‘큐티’와도 같습니다.** 사랑부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은 보배들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도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어렵사리 옆자리를 내어줍니다. 두려움과 굳어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도 이내 멀리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세상의 가식에 묻혀있었던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기도 합니다. 아무런 판단이나 편견 없이 가리켜주는 거죠. 마치 말씀처럼.

둘째로, 사랑부 사역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랑부에서의 기도는 좀 더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어지는 상황에, 이미 벌어진 상황에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의 기도이고 말이 없는 울부짖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집을 자주 뛰쳐나가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될 뿐 아니라 맨발로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요청이 들려지고 저희 교사들,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무사히 돌아올 것이 믿어지기도 했지만 또한 사라지지 않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간절

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때로는 큰 도로 한복판 중앙선에서, 전철 반대편 끝 쪽 역에서, 하루가 지나고 강 건너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기도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사랑부 사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알게 되고,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셋째로, 사랑부 사역은 ‘선교’와도 같습니다.

같은 문화권에서의 복음전파가 ‘전도’라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전파라고도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마치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게도 장애인 학생이 사랑부로 나오게 되면 점차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이 교회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녀들만 사랑부 예배에 보냈던 부모님들도 언제부터인가는 교회예배에 참석하게 되시고 특히 아버님들께서는 라이딩만 해주시다가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친지들조차 장애인학생으로 인해 신앙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학생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사역을 섬기는 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땅 끝’이 바로 장애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 대상이며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부와 BEE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역지입니다^^ 사랑부를 섬기기 시작하던 해 겨울에 동료 사랑부교사의 추천으로 갈라디아서를 들었습니다. 단지 성경공부로 시작했던 BEE였는데 한동안 멈추었다가 2008년부터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혀 이질적인 두 사역으로 인해 언젠가 하나는 그만둬야하지 않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부 교역자의 자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두 사역을 병행하도록 이끄셨습니다. BEE가 아니었다면 저는 신학교로 진학을 못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BEE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신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었을 겁니다. 신학생 시절과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모임과 세미나 인도를 통해 사역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BEE의 말씀사역이 과연 사랑부 지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사랑부 친구들과 그 가정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 대상’이며 선교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랑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나 못하는 사역.....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힘드시 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한때는 제가 봉사하고 제가 사랑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심하곤 합니다. 결코 제가 사랑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부가 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랑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튕겨져 나가거나 자기 갈 길을 간다고 해매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사랑부가 저의 설 자리를 지켜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BEE의 말씀사역을 통해서도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어느 영성가의 글귀를 옮기며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은 결코 이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심인이다.”



글: 김종영 / 편집: 최지영

BEE 소식

1. 이사회에서 인도인 1, 네팔인 5이 선교사로 허입되었습니다.



2. 24일 신동준선교사님 목사 안수 받습니다.